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4호 【루게 제23006호】 주제 99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대학생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새 세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

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 부장 김경희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제강동지, 리제일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설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농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대학생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시이 이야기와 합창 《조선아 너를 빛내리》, 가야금병창 《수령님 같이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녀성중창

《고향집추억》, 쌍둥이노래 《장군님 따르는 마음》, 선동이 이야기 《필승의 신념》, 혼성중창 《우리의 소중한 대학시절》, 극 이야기와 노래 《수술칼에 비긴 두 제도》, 선동곡 《15》,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노래와 선동 혁명가극 《피바다》 중에서 《피바다가》, 남성중창 《은 나라의 대경사로세》, 《강성대국이 보인다》, 제담 《우리의 도덕》, 이야기와 노래 《건축인제가 되렵니다》, 《우리 학부 료리품평회》, 시와 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영원히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대학생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씩씩하고 생기발랄한 대학생들의 열정에 넘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는 우리 대학생들의 고상하고 건전한 사상정신세계와 도덕품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으며 주체교육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우리 대학생들을 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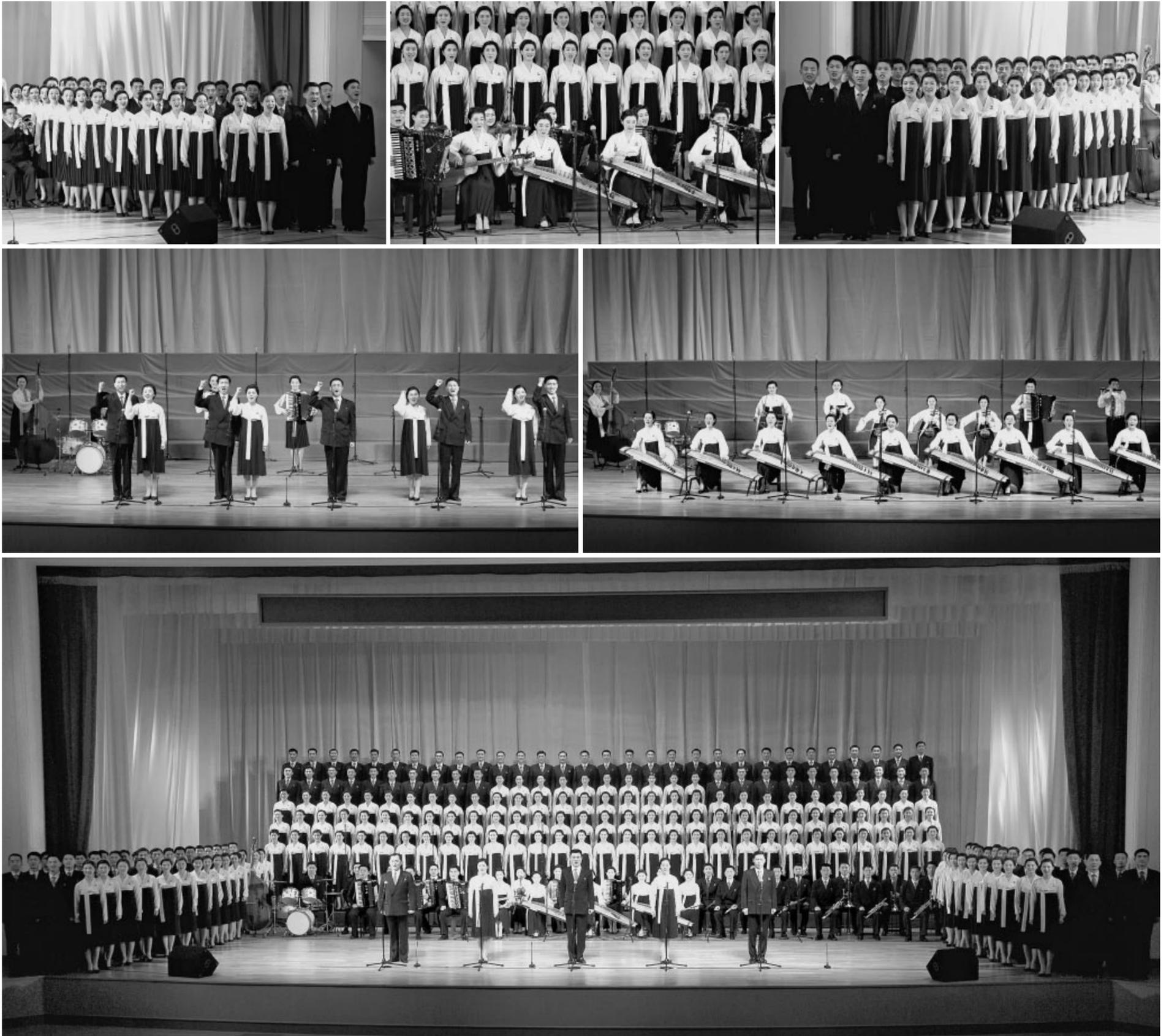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후비대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자랑스럽게 펼쳐보인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이 선군 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를 적극 배워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 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 대학생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일련단심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참다

운 청년전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미더운 새 세대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능한 민족간부들과 기술인재들을 많이 육성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한데 대해 우리 당은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적체를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나라의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육교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연에 출연한 전체 대학생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대대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굶주리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역세계 준비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 윤광섭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인민배우 윤광섭동지의 서거에 김정은이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세계 자주화위업의 위대한 수호자

초강도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자주로 존엄높고 신군으로 전진하는 김일성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안면을 바라는 절절한 녀민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에 올린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현시대의 가장

결속한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 김정은의 위인이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령도자로,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며 그의 건강을 절절히 바라고있다. 인도네시아투쟁민중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메가와티 수카르노부르피와 총서기 프라모노 아농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어 조선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중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우크라이나 오스노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1일 키예브에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주체사상연구협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연구회들의 전국조정위원회와 출판보도, 과학, 교육부문의 인사들이 발행식에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는 우크라이나 오스노비출판사 사장 겐나지 노가가 발언하였다. 그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동지의 로작 《민중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는 진정한 민족주의의 본질과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의 반동성을 밝혀주어있는 것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체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해명을 주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실천에서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빛나게 해결하신 가장 견결한 혁명가이시면서 절세의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의 자시였으며 국제주의자의 귀감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은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 《민주주의세계》로 만들어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자는 것이라고 폭로하시고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게끔 하는 투쟁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다.

새 사회건설에서 민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오늘 우크라이나의 정세하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출판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릴 것이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굴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네덜란드 프린팅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0일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네덜란드 및 체육성,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전국기자국립부를 비롯한 정부 성,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네덜란드 및 체육성 가네쉬 네덜리는 발행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와 똑 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를 모신 국가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외국압살해동족에서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현정세하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따라배워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것은 네덜란드 뿐만 많은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의 로작을 출판하는것은 네덜란드인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로작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덜란드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본사기자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였다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기자, 언론인대회가 22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전당, 전군, 전민이 새해 공동사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탄원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렸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에는 북대마이크를 역세게 틀어놓고 언제나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 긍지높이 찬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군시대 대고조의 전군나팔수의 영예를 펼쳐가고있는 기자, 언론인들의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뛰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과 조선로동당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주석단배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퉁이와 《전국기자, 언론인대회》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절정의 보복을 맞추어나가자!》, 《기자, 언론인들은 찬만군민을 대고 조직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진의 나팔수가 되라!》라는 구호들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김영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각동지, 김중동동지, 김기남동지와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기자, 편집원, 방송원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 그리고 총련의 기자, 언론인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전진나팔수이다》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우리의 언론이 당과 수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하시면서 서 혁명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시대 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선군혁명투쟁과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온 나라에 비약의 폭풍이 일게 하는 총진군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력사적인 서한에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출판보도사업에서 당의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 령도의 혁명성에 대한 신진,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신념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신진 등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어있었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

의 목소리, 전군의 나팔수가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언론문제를 본래있게 벌리기 위한 방도들이 서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서한은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에서 유려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전선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출판보도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당 언론건설의 첩경이라고 하시면서 언론활동원칙들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자, 언론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될데 대한 문제, 정연한 후비양성체제를 세우고 언론인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출판보도부문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언론전선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모든 기자, 언론인들이 혁명의 북대를 역세게 틀어잡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전진나팔수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한은 주체인론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강령적지침이며 기자, 언론인들이 출판보도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무적기치로 된다. 력사적서한에 접한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격정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

철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전제 기자, 언론인들이 북대와 마이크를 틀어쥐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우리 언론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는 것에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사상적기치수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언론건설과 활동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였으며 기자, 언론인들이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벌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적사상공세를 혁명적사상공세로 짓부셔버리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진로를 열기 위한 결사전에서 북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놓을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12월호소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지펴주시고 선전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어 현 시대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우리 언론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는 것에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사상적기치수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언론건설과 활동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였으며 기자, 언론인들이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벌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적사상공세를 혁명적사상공세로 짓부셔버리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진로를 열기 위한 결사전에서 북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놓을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12월호소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지펴주시고 선전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어 현 시대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우리 언론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는 것에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사상적기치수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언론건설과 활동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였으며 기자, 언론인들이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벌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적사상공세를 혁명적사상공세로 짓부셔버리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진로를 열기 위한 결사전에서 북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놓을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12월호소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지펴주시고 선전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어 현 시대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우리 언론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는 것에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사상적기치수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언론건설과 활동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였으며 기자, 언론인들이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벌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사회주의보건의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이 땅에 마련된 창조물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사회주의보건의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언제나 어머니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안주시 인민병원의료일군들... 어느 한 도로에 서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안주시 인민병원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뜨겁게 되돌아왔다

자부심을 가지고 의로봉사...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켜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켜... 수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리공학연구소에서

더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랑 많은 일터

보기도만 해도 정신이 번쩍... 자랑 많은 일터... 보기도만 해도 정신이 번쩍

인민연구사업양기계획에 힘입어

인민연구사업양기계획에 힘입어... 인민연구사업양기계획에 힘입어... 인민연구사업양기계획에 힘입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제일본조선인 축하단 여러곳 참관

리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 축하단... 리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팔레스티나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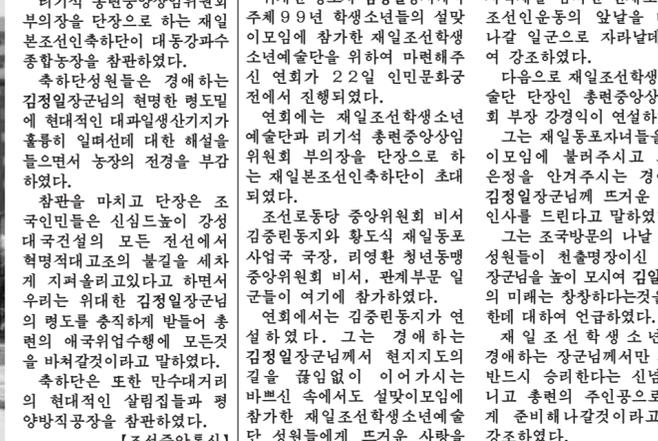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 팔레스티나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우리가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우리가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애국의 호소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펼쳐나서자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극히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겹쌓이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온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 6. 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과 고려민주평화통화국창립방안제시 3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려는 승승한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6. 15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는 거대한 강령한 지향과 의지, 현정세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호소문은 온 겨레의 가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에 힘있게 부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합력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6. 15 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따라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의지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 열망과

의지는 지금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 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어오던 대결과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었다. 수십년간 풍풍 얼어붙었던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 파렬구가 열리고 풀려졌던 민족의 혈맥과 나라의 지맥이 다시 이어지는 가슴벅찬 현실은 해내의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신심, 통일애국의 열망과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조국통일의 표대인 6. 15 공동선언을 받아안고 온 겨레가 기쁨의 환호를 울리던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일으키는 대결의 광풍에 의해 어떻게 뜨겁게 차던치던 6. 15의 기운은 찬서리를 맞았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시대가 남조선에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리념과 원칙들이 부정당하고있으며 통일애국세력이 가치없이 탄압당하고있다. 단합과 협력을 위한 남조선각계 단체들과 민족과의 접촉과 교류도 부당한 리유로 차단되고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호전파들이 통족을 반대하는 팽만적인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 체제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지어 극단적인 선제타격을 포함한 자위타격을 일삼고있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남조선당국의 **《비핵, 개**

사실상 지금 우리 민족은 통일이나 분렬이나,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기로에 서있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거족적인 조국통일대행진에 총력기합전을 열렬히 호소한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이룩함에 대해 호소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필수적전제이고 요구이다.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떠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해외의 각계각층이 손을 잡고 민족적화해를 적극 실현하며 배양과 접촉,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해나갈 때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이룩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속시키면서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실현해나가는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반통일과외압법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파급히 벌여나가야 하며 동족사이의 배양과 협력을 가로막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책동을 준렬히 반대규탄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

방, 3 0 0 0》과 반민족적인 **《세계통일》** 문을 비롯한 온갖 반통일대결론을 역사의 오물통에 처해야 한다.

반통일호전세력들의 위협천만한 대결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어치우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이룩함에 대해 호소하였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속시키면서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실현해나가는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반통일과외압법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파급히 벌여나가야 하며 동족사이의 배양과 협력을 가로막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책동을 준렬히 반대규탄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

대본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그 위력은 온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합을 적극 실현하고 공동행동을 강화하여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올해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65년, 일제의 남조선강점 **《한일합방조약》** 발표 100년, 4. 19 인민봉기 50년, 광주인민봉기 30년이 되는 해이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올해에 남조선에서 반의세력주화, 반통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호소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남조선강점, 그로 인하여 사회의 자주적, 민족적발전이 심히 지연되고 조국통일의 길이 가로막히고있는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지없는 민족적수치로 되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남조선인민들의 살길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50년전 4. 19 용사들과 30년전 광주학생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광장에 다시한번 걸터나서 민족사의 반동들에게 준렬히 철수를 안겨야 할것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우리 겨레의 강령한 통일지향과 념원을 담고있으며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명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우리 겨레

가 나아가길 얻은 어제도 오늘도 민족 조진민족이며 그 위력은 온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합을 적극 실현하고 공동행동을 강화하여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올해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65년, 일제의 남조선강점 **《한일합방조약》** 발표 100년, 4. 19 인민봉기 50년, 광주인민봉기 30년이 되는 해이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올해에 남조선에서 반의세력주화, 반통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호소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남조선강점, 그로 인하여 사회의 자주적, 민족적발전이 심히 지연되고 조국통일의 길이 가로막히고있는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지없는 민족적수치로 되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남조선인민들의 살길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50년전 4. 19 용사들과 30년전 광주학생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광장에 다시한번 걸터나서 민족사의 반동들에게 준렬히 철수를 안겨야 할것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우리 겨레의 강령한 통일지향과 념원을 담고있으며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명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우리 겨레

현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해내의 온 겨레를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으로 부른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에서 21세기는 조국통일의 세기, 우리 민족이 강성부흥하는 영광의 세기이며 뜻깊은 역사적 해 2012년은 그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 2012년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로 되게 함에 대한 애국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

위대한 선군태양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그 길에는 통일강국의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올해에 남조선에서 반의세력주화, 반통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호소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남조선강점, 그로 인하여 사회의 자주적, 민족적발전이 심히 지연되고 조국통일의 길이 가로막히고있는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지없는 민족적수치로 되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남조선인민들의 살길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50년전 4. 19 용사들과 30년전 광주학생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광장에 다시한번 걸터나서 민족사의 반동들에게 준렬히 철수를 안겨야 할것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우리 겨레의 강령한 통일지향과 념원을 담고있으며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명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우리 겨레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의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조출해 6. 15 공동선언실천 동민국가협동지역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즈베끼스탄주재 우리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가 16일 우즈베끼스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군님의 승고한 조국애에 떠받들려 남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에 앞서 14일 2. 16 경축모임이 우즈베끼스탄 피슈펜트주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2월 16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근 반향을 일으킨 공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재일조선인민들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새 시대 동포청년들을 어떻게 키워나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총련 히로시마조선학원은 일본 후쿠오카시와 시코쿠지방의 재일조선인민교육에서 중심적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지난해말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종합예술공연을 동포사회의 기쁨으로 관중들에게 선보였다. 히로시마, 돗토리, 오카야마 등 여러 지역의 총련일꾼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이 공연장소로 모였다. 이 공연은 동포들에게 재일조선인민들과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 총련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파시하기 위해 총련조직과 상공회, 교육회 등에서 민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이 학원출생생들이 맡고있는 것이다. 합창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민족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그 명맥을 굳건히 지켜나갈 세 세대들의 의지를 담은 노래이야기 **《대를 이어 우리 학교 지키자》**, 증창 **《우리를 보시라》**, 무용 **《우리 학교가 좋아》**와 고유한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판현악 **《이리랑》**, 기악합주 **《명절들**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치원원아들도 무용 **《열세구 총대 우리 유치원》**을 준비하여 내용이 절찬을 자아냈다. 300여명에 달하는 출연자들은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아름다운 민족적정서와 고상한 정서로 덕적품성을 키워가는 자기들의 밝고 행복넘친 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학부형들도 경정적으로 특색있는 종목들을 내놓아 공연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아버지들이 출연한 노래와 춤 **《어린 주인공들에게》**와 어머니들의 증창 **《조선의 꽃으로 너를 피우리》**는 관중자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공연은 학원의 전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학부형들의 합창과 무용 **《만종년》**으로 막을 내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이역땅에 민족교육의 화원이 만발하게 해준 어머니조국의 은정어린 사랑을 잊지 않고 정다운 학교, 사랑하는 동포사회를 세세년년 더욱 빛내어나갈 자기들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특히 일본인민들의 감동이 컸다. 그들은 일본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지런 밝은 표정과 밝은 웃음을 볼수 없다.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위한 정성이 담겨진 노래들을 펼치는 모습도 상상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할수 없다고 하면서 모두가 천부도, 천형체가 되어 화목한 한가정을 이룬 동포사회와 우리 학교에 대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높이 펼친 민족의 기개》** 지난 1월초 민족각지의 동포사회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 투구팀이 일본전국고등학교투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3강팀에 속하였다는 소식이었다. 80여명의 일본고등학교팀들이 참가하여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는 이 대회에서 우리 학교팀이 거둔 성과는 온 동포사회에 커다란 긍지감이 물결치게 하였다. 지역별에선경기대회에서부터 류달리 번번히 몰락으로 사회계의 초점을 모았던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팀이었다. 더우기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우리 학교팀이 이토록 놀라운 성과를 거두다니...

높이 펼친 민족의 기개

사실 지역을 대표하여 본선 경기대회를 참가하는 다른 일본학교팀들은 모두 지역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는 각종 차별을 받는데다가 최근년간에는 부지사용에 관한 지역당국의 부당한 소송으로 운동장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이 학교는 다른 일본학교들에 비해 학생

높은 경기조직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동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역땅에 민족의 승기와 기개를 더욱 높이 떨치려는 애국의 의지가 비껴있었다. 막에서는 난판과 장애를 민족의 넓과 의지로 파급히 극복한 이 학교팀 선수들에게 동포사회는 지금 아낌없는 찬사와 고무격려의 인사를 보내고있었다. 한 의식은 이에 대항하여 평하면서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팀이 거둔 성과가 재일조선인사회에 커다란 힘으로 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우리 학교선수들의 성과에 고무된 재일동포들은 지금 애국의 기세드높이 **《동포찾기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 기념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가 16일 싸할린주에서 기념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장순정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 제1부회장이 **《현시대의 걸출한 정치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2월 16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라고 말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 기념강연회 진행

하였다. 오늘 조국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에 의해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서 놀라운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이 자랑찬 성과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박탈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위협공격하였었다.

이렇게 되어 그를 검찰이 기소하였는데 결국 무죄판결이 나와 **《한나라당》** 페들은 참으로 대사하게 되었다. 일이 이쯤되었으면 **《한나라당》** 페지리들로서는 저들의 파쇼적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리성있게 처신했어야 마땅하였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책회의》**라는것을 열고 **《실망스러운 판결이 계속되면 《국회》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느니, **《국회》가 사법을 법원의 전 유물에서 해방해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법원》** 판사들을 불러들이 추궁하는 소동까지 벌여냈다. 이것이 **《법원》**마저 권력의 시시로 길들이 독재정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청장상을 갠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은 예외없이 극우보수세력인 **《한나라당》**과 파쇼노블들의 퍼비린 폭압의 희생물들이다. 온 남조선사람을 **《실용독재》**가 살판치는 스산한 감옥으로 전락시키고있는 **《한나라당》**이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적정의의를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은 물론 야당대표까지도 팔방하는것은 극악한 파쇼독재정당으로서의 이 반역집단의 더러운 물골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한나라당》** 족속들은 **《국회》**를 저들의 독주무대로 만들어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지향하는 진보적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로운 진출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파쇼악법들을 조작해내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인민을 등진 시정배들의 단발마적인 발악이다. 그러나 사태는 결코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으면서 독압무력을 내몰아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을 타치는대로 탄압하는 파쇼강제당인 **《한나라당》**에 정치적사형을 선고한지 오래다. **《한나라당》** 페지리들이 **《실용독재》** 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파쇼독압질서에 없애려고 가차없이 칼질하려 하는것은 부질없는것이며 저들의 파멸만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적정의의를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은 물론 야당대표까지도 팔방하는것은 극악한 파쇼독재정당으로서의 이 반역집단의 더러운 물골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한나라당》** 족속들은 **《국회》**를 저들의 독주무대로 만들어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지향하는 진보적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로운 진출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파쇼악법들을 조작해내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인민을 등진 시정배들의 단발마적인 발악이다. 그러나 사태는 결코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으면서 독압무력을 내몰아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을 타치는대로 탄압하는 파쇼강제당인 **《한나라당》**에 정치적사형을 선고한지 오래다. **《한나라당》** 페지리들이 **《실용독재》** 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파쇼독압질서에 없애려고 가차없이 칼질하려 하는것은 부질없는것이며 저들의 파멸만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과 불순한 모략책동이 날로 더욱 팽기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의외에 야합하여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력에 대한 **《선핵페기》** 소동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벌이고있다. 그들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인 평화형성제정 **《제제》** 해제를 외면하고 무작정 우리가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악정을 들구면서 반공화국핵소동의 맨 앞장서서 나섰고있다. 한편 남조선호전세력은 불법무법적 **《북방한계선고수》**를 떠벌이며 조선시해해상에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소동을 일으켰으며 이 일대에 무력을 집중하고 전쟁장관소동을 벌이고있으며 남조선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최근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과 불순한 모략책동이 날로 더욱 팽기고 있다.

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통일지대와 해안, 국경지역을 통하여 우리의 존엄을 제제를 해치기 위한 정탐모략과 **《대북내부리공화국》** 작전을 미친듯이 벌이고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남조선의 **《정보보고》**과 **《기무**

신을 넘어 이제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공화국대결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세계화》**의 통일》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의 부리깊은 야망이다. 이미 집권전부터 6. 15 통일시대의 흐름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탈을 쓴 **《대북전환》** 10. 4 선언을 부정해온 이 조종들은 집권후 부강해온 그 의적으로 파피하면서 제제대결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남조선당국은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 0 0 0》**을 꾸미고 그에 기초하여 의외와 함께 **《선핵페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실용독재》**에 대해 무리하게 고집하고있다. 최근 보수세력들속에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처치는 중요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대결정신자들의 반공화국 **《제제》** 시도는 반상이 천백번 뒤집힌데도 실현될수 없는 어려서기 지저없는

민족의 기상 안고 뛰고 또 뛰는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 투구선수들

민족의 기상 안고 뛰고 또 뛰는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 투구선수들



남조선의 민주로총 부산본부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들에 대한 탄압을 단죄

은영학교에 리용되었던 자료집을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리적표현물》**이라고 걸고들며 **《보안법》** 위반으로 몰아대는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영학교에 리용되었던 자료집을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리적표현물》이라고 걸고들며 《보안법》 위반으로 몰아대는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은 영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교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원》** 측의 처사를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걸고있는 자료집은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